

# ‘10만원 선물 허용’...전국 농·어가 명절 활기 기대

### 영광굴비 주문량 증가, 백화점 선물세트 예약 늘어 명절 매출 반등 기대...김영란법 전 수준 회복 ‘난망’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개정 후 두 번째 명절이 자 첫 추석을 앞두고 전국 농·어민, 상인들이 기대에 부풀었다.

특산물 생산·유통 현장에서는 이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앞장서 웃음을 되찾았다. 굴비의 고장인 영광 법성포 상인들은 17일 법 개정 전보다 늘어난 주문량에 바쁜 손놀림을 보였다.

일부 상인은 상한액 상향 후 첫 명절이었던 지난 설 때보다 주문이 2~3배 많

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주력이었던 15만~20만원짜리 선물세트의 포장재 등을 최대한 줄여 10만원에 맞춰 내놓았다.

번성했던 과거 수준까지 회복은 어렵겠지만, 명절 매출은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상인들은 기대했다.

다만 굴비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원가 상승으로 전반적인 굴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2016년 설 때 굴비 판매량은 7천808t

(1천200억원), 추석 때는 8천784t(1천350억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에는 5천466t(840억원), 추석에는 5천270t(810억원)으로 떨어졌다.

강철 영광굴비 특산물사업단장은 “굴비를 명절 선물로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는 것 같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우, 홍삼 등 고가 특산물을 생산하는 전북 농가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 무렵 한 달간 매출은 2016년 설과 비교해 한우 14.8%, 화환용 국화 16.7%, 사과

18.9%, 조미 김 12.5%씩 줄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홍삼은 38.5%나 감소해 농가 시름이 깊었다.

진안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 이모(62)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홍삼 선물세트 판매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었다”며 “선물 상한액이 인상됐다고 하니 그나마 매출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수축산물 선물 판매량 회복세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사전예약에서도 감지된다.

경남 대형마트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전년 대비 5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한 백화점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가량 늘어났다.

과수 농가에서도 훈풍이 느껴진다.

충북 충주에서 20여년간 사과를 재배한 김영기(56·여) 씨는 “청탁금지법 초기에는 명절 선물세트 가격대를 꼼꼼히 살펴보다 그냥 가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상한액이 높아진 뒤로는 더 편하게 구매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과일로 넘어간 손님들이 국산을 다시 선택하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했다.

김씨는 “저렴한 수입산 과일을 명절 선물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산 과수 농가들 사이에 청탁금지법은 수입과일을 도와주려고 만든 법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	2,303.01(-15.24)
코스닥	↓	828.88(-6.03)
원·달러·환율	↑	1,127.00(+7.50)
금리(국고채 3년)	↑	1.96(+0.04)

### 하이트진로 ‘자두에이슬’ 8개월 만에 150만병 수출

하이트진로는 수출 전용 제품 ‘자두에이슬’이 1월 출시 후 8개월 만에 150만병이 팔렸다고 17일 밝혔다.

자두에이슬은 ‘자몽에이슬’·‘청포도에이슬’에 이은 하이트진로의 국내 과일 리큐르 세 번째 제품으로, 수출 전용으로 출시됐다.

참이슬의 깨끗함과 자두의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 북미·중국어권·아시아태평양·유럽 등 2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처음에는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붐이 일었지만, 최근에는 제품 자체의 맛을 인기 요인으로 꼽는다”며 “현지인에게도 익숙한 과일 향과 맛뿐 아니라 비교적 낮은 도수가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은 평”이라고 분석했다.

/제갈대중 기자 dj2891@



### 코레일 광주본부 ‘제주 환상자전거길 오름 자전거투어’ 진행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역은 13일부터 16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제주 환상자전거길/오름 자전거투어’ 상품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주 환상자전거길/오름 자전거투어’ 상품은 스탬프투어 코스로 10개 인증센터를 완주하는 제주 환상자전거길과 1,000m 고지 천아숲길, 돌오름 입도, 사려니 숲길 등의 한라산 숲길 코스를 완주하는 오름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3일간 라이딩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

코레일(목포역)에서는 에코레일 자전거 대여 상품인 이번 ‘제주 환상자전거길/오름 자전거투어’를 포함해 올해 총 5차례 운행했으며, 10월 5일에도 2박3일 일정인 목포~신안 자전거투어 운행이 예정돼 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현대자동차(주)가 우수한 정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노후 차량의 내·외장을 복원하고 정비해주는 ‘H-리스토어(Restore)’ 캠페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 현대차 “사연 보내면 노후차 복원해요”

### ‘H-리스토어’ 캠페인...10~20년 차량 내·외장 복원·정비

현대자동차(주)가 우수한 정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노후 차량의 내·외장을 복원하고 정비해주는 ‘H-리스토어(Restore)’ 캠페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H-리스토어’ 캠페인은 차주가 생업 중사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차량에 난 흠집, 차량 노후화로 인한 흔적 등을 관리할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착안한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대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차량 교체와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의 사연 신청을 접수받아, 사내 각 분야별 전문 정비사 20명으로 구성된 차량 복원 드림팀을 투입해 차량 내·외장을 복원하고 정비해 전달할 계획이다.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출고 후 10년~20년)된 차량 보유 고객은 누구나 17일부터 30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통해 사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선정된 고객(2대 선정)은 10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보유한 최고의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의 고객 감동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 신뢰에 대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중 기자

### 광주 중소기업 (주)감성

## ‘대용량 공기청정기 개발’ 도전장

### 나노기술 이용...학교, 병원 등 다양한 수요 기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시장에 광주 중소기업 ㈜감성이 대용량 공기청정기 개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승길 ㈜감성 대표

에 편차를 보이는 전기집진방식의 공기청정 방식에 비해 각종 감기바이러스 마스터 통과하지 못하는 크기의 기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청정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감성은 대기업에서도 생산하지 못한 대용량 공기청정기 ‘MIDUS-3’를 개발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MIDUS-3’는 기존 전기집진방식의 공기청정기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나노필터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은 물론 공기청정기능이 탁월하다.

기존 전기집진방식 공기청정기시스템은 인체에 유해한 오존 등의 유해가스 발생과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유럽의 경우 실사용 시 주위 환경에 대한 온도과 습도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성능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테스트 과정에서 정전력 테스트를 제외한 필터의 정화 기능만을 검사 기준으로 한다.

반면 감성이 개발한 ‘MIDUS-3’의 나노필터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공동 개발한 것으로 300나노급 나노섬유를 적용했다.

그로 인해 ‘MIDUS-3’은 주위환경

㈜감성 유승길 대표는 “MIDUS-3은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개발한 나노필터 기술을 접목한 독점제품으로 기존 대기업들의 공기청정기와는 상대적 비교가 불필요하다”며 “전기집진 방식에서 문제가 돼왔던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 등의 피해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절전효과는 물론 필터의 교환시기가 최대 2배 이상 길어져 30% 이상의 경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대표는 “기존의 18평형의 공기청정기에 이어 이번 출시된 34평형의 ‘MIDUS-3’은 향후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유치원 등 다양한 수요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상구 기자 rkdtkdm0913@

# 24시

## 굿모닝

### 보석불가마

###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